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 5. 11.(목) 09:00 배포 2023. 5. 11.(목)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업계와 소통 강화로 K-조선 재도약 앞당긴다

- 대·중형 조선사, 조선 기자재 업체 등 조선업계 CEO 간담회 개최
- 인력 확충,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업계 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창양 장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5.10.(수) 울산 현대호텔에서 대·중형 조선사 및 조선기자재 업체와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다.

* 업계참석자 :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케이조선, 대선조선, HJ중공업, 한국카본, 정우ENE,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금번 간담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추진한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RG 등 금융지원 확대 정책 등으로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한편,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포함하여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향후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LNG 운반선 화물창 생산인력의 확보, 수소·암모니아 선박 개발, RG 발급기한 단축, LNG 화물창 등에 대한 국적선 발주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규제완화, 인력충원 등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업계와의 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조선업계가 전달한 목소리는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 과정을 직접 챙겨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금융위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그간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노력한 결과”라고 말하며, “오늘 주신 새로운 의견에 대해 지속적 소통을 통해 정책의 합의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업계 주요 발언내용>

A사는 “새로운 정부가 인력과 금융을 적극 지원해준 결과 우리 조선산업이 재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LNG 선박의 화물창 공사 인력과 미래 기술 연구인력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어서 B사도 정부가 용접 등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흔쾌히 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RG 등 금융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

또한 C사는 “정부의 정책 덕분에 신속하게 인력 도입이 진행되어, 용접, 도장, 전기, 플랜트 4가지 직종에 대해서는 필요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급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E-7제도에 대해 의장 등 새로운 직종 추가와 현장 실무능력 중심으로의 자격제도 개편 등을 건의하였다.

한편 D사는 RG 한도 확대 및 환헷지를 위한 신용한도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E사는 RG 발급 기한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고, F사는 RG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G사는 국제 환경 규제 강화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의 독자적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관련 기자재 개발시 육·해상 실증과 Track-record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였다.

H사는 우리가 개발한 LNG 화물창 기술이 실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선 발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한편, 신규 공장 증축을 위한 지원과 중견기업의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제도적 문턱을 낮춰줄 것을 건의하였다.

산업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송현주	(044-203-4330)
		담당자	사무관	여수항	(044-203-4332)
금융위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안기빈	(02-2100-286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